

권영세 안동시장 <6.4 지방선거 재출마 기자회견>

3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서구동 중앙시장(新市場) 내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6.4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서민(庶民)들 삶의 현장인 시장 좁은 길에서 가진 이색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각 신문, 방송의 기자들을 비롯하여 정동호 전 안동시장, 김병호 등 전, 현 도의원, 김근한 시의회 의장 등 전, 현 시의원, 안동권씨대종원과 안동종친회 고문단과 임원들, 각 유립대표, 기관 단체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시장 골목길을 꽉 메웠다.

권영세 시장예비후보자는 이날 <6.4 지방선거> 때 안동시장으로 재출마를 하면서 지난 4년간 민선 5기를 회고(回顧)하고 아울러 앞으로 민선 6기를 이끌어 나갈 방향 7가지를 소상히 피력했다. 그는 민선 5기

를 회고하면서 '카리스마'라는 이름에 큰 소리 치면서 독단적(獨斷的)으로 일하기보다 조용하지만 침착하게 그러나 뒤늦게 울림이 있고 깊이가 있는 <안동선비다운 시정 구현>을 위해 애썼다고 솔회했다.

또한 안동경제 살리기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 시대를 이어왔으며 민선 5기에 약속한 6대 분야 38건의 공약 중 30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건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6기를 이끌어 나갈 7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안동을 희망과 번영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밝힌 7가지의 역점사업(力點事業)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째 안동도심을 문화와 역사, 깨끗한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둘째 안동을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키며, 셋째 안동을 비이



◇3.19 안동 중앙시장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산업의 집산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넷째 그는 또 농업기반시설 확대와 명품브랜드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다섯째 용상, 옥동, 강남, 풍산읍을 특화발전전략으로, 여섯째 교육, 행정 중심도시로 만들며 마지막 일곱째는 명품 도청

신도시 조성을 통해 안동을 에너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는 회견장에 나온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시장 일대를 돌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정조공파종회(正朝公派宗會)정기총회

정조공파종회(회장 권인탑)는 3월 16일 오전 11시 안동시 중앙로 광석빌딩 4층 파종회 회의실에서 종원(宗員)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상배, 상음례(相揖禮)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인탑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청마(靑馬)의 해로 좋은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는 우리 문중의 자랑이며 나아가 안동권씨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초증기 권정평(權正平) 묘지명(墓誌銘)이 발견되어 많은 관심을 갖는 한 해였는데 앞으로 이 묘지명은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종원들에게 알려 주겠다"고 말하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녀 장학금 지급, 보학강좌, 경로잔치 등은 더 알차게 그리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해 포부를



◇정조공파 총회 정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인탑 회장

밝혔다. 이어서 권혁조 총무부장의 경과보고, 권영택감사의 감사보고, 2014년도 신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토의 후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한 종원들에게 타월 한 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선물을 받은 종원들은 사무실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호풍이숯불촌'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여 점심을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누다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강릉 大司成公宗會 제33차 정기총회

權承璣 회장 선임

대사성공(諱 悤)종회는 3월 10일 교동 동해관(한정식)에서 족친 61명, 부녀회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3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당초 2월 1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강릉지방 기상관측 이래 100년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한 달이나 연기가 되어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권혁춘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능동묘역을 행하여 땅배를 드리는 순서에 이어 갑오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 의식을 갖고 원로고문님, 유교문화 계승 발전에 헌신한 권오운 前강릉항교 전교, 원거리에서 참석한 수도종친회 권오실 회장 권승용 총무, 6.4 전국지방선거에 출마할 권혁열 강원도의원 권혁기 강릉시의원, 강릉수영장을 운영하는 권오두 대표를 비롯하여 정장년 모임인 대성회 권오록 회장이 참석하였다.

옛 고사에 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있어서 요즘처럼 쌀쌀한 봄 날씨에 원근 각처에서 족친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다. 이어

서 권명준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9일간의 계속내린 폭설로 종친님 가정에 피해는 없으셨는지 또한 외진 곳에 거주하시는 족친은 교통수단으로 불편하진 않았는지 일일이 안부도 여쭙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절기상 경칩도 지나지만 아직도 잔설 속에 조석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결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당부하면서 송조이념의 실천은 선조의 묘역을 관리하고 수호하며 봉행하는 것이겠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 후손들의 지켜야 할 도리이고 또한 계속 지켜야 할 막중한 책역이라 생각한다며 연초 종중에서 세장동인 상산면 관음리(안국)와 同知公(22世) 선조 묘역을 굳건히 지켜온 수호목에 同知松이란 표지석을 수립하는 것으로 임기 내 종사 일을 마무리짓고 오는 3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별 과오 없이 책무를 수행하게 됨은 오로지 족친여러분의 보살핌과 이끌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늘 감사한 마음



◇대사성공종회 33차 정중에서 선임 권승기 회장이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갖는다고 이임인사를 하였다. 장문자 마님회(부녀회명칭)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권씨 지체 높은 문중의 안 주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처신에 소홀함이 없도록 회원 상호간에 노력하며, 종중 각종행사에 내조자로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봉사하겠으며 자녀들에게는 실추된 도덕성 회복에 관심을 갖고 예의범절 등 가정교육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혁춘 총무의 중무보고, 권영하 감사의 감사보고, 권원주 재무의 결산보고 후 201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새로 선임된 권승기(36세)회장은 1941년생으로 40여 년간 중등 교육 공무원으로 봉직하다 교장으로 퇴

임한 이후 북야공파 부회장, 강릉종친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종친회 발전에 헌신하였다. 권승기 선임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임기기간 원로고문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임원들과 협의하여 중재를 모아 종회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이날 전청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부회장: 권혁진(진사대)-신임, 권순호(퇴곡대)-신임
 - ▲감사: 권영하(우계대)-유임, 권혁렬(충주대)-신임
 - ▲총무: 권혁춘(충주대), 재무: 권현주(충대) 유임
- <대사성공종회 권원주>

검교공파종회 신년교례회 임원회의



◇검교공파종회 신년교례회 및 임원회의에서 권태강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교공파종회(회장 권태강)는 지난 2월 22일 12시 상주 강감태(현우촌)에서 서울, 안동, 영주, 대구, 안 2월 22일 12시 상주 강감태(현우촌)에서 서울, 안동, 영주, 대구, 안

한우촌에서 서울, 안동, 영주, 대구, 안 2월 22일 12시 상주 강감태(현우촌)에서 서울, 안동, 영주, 대구, 안

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임원회의를 가졌다. 권영호 총무부장의 사회로 상견례와 상례행사에 이어 권태강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두가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또한 부녀회, 청년회 창립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무탁부회장의 격려의 말이 있었으며, 경과 보고와 임원소개가 있었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고문: 권병인, 태연, 영해, 오창, 오춘, 오철서 등을 추대하고 △부회장: 권태춘, 태임, 정휘, 승일, 정수씨를 선임하였으며 △운영위원은 지역별로 12명을 위촉하고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에 산회했다. <권영호 총무부장>

대사성공(諱 悤) 首都 宗親會 定總

대사성공(諱 悤)수도(서울, 경기) 종친회(회장 권오실)는 지난 2월 22일 12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동 738 현대코아 나빌레라에서 2013년도 결산보고와 임원개선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사성공 수도 종친회의 현대코아나빌레라에서 열린 11차 정중에서 권오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권영용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및 파조단소에 대한 땅배를 시작으로 권오실 회장의 인사에 이어 권명준 대사성공(諱 悤) 종회장의 축사에 이어 총무의 경과보고 및 권영용 감사의 보고, 2013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권오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종친 분들과 권명준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강릉 종회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렸다.

오실 회장은 "수도종친회는 조상에 대한 숭조의 도리를 다하고, 종친간 화합과 단결·소통하며 상부상조하는 애족사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종친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 지역 종친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안동 권문의 후예로서 그 위상과 긍지를 가지고 종친회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 종친 여러분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권명준 대사성공(諱 悤) 종회장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수도 종친회에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친간의 화합과 단결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조상님을 위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종사 일은 조상님을 위하고 조상님이 있어서 문중이 있고 문중이 있기에 종친회가 있는 것이다. 이제의 더 젊은 세대들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니 수도 종친회가 승승장구하는 발전을 기원 한다"라고 말하였다.

임원개선에는 임시회장이 권오실 회장을 선임하여 회의 진행으로 권오실 회장이 재추대 선출되고 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들도 연임되었고 회기에 임한 분위로 회의를 마쳤다. <권승용 총무>

제 26회 대전 청·장년 문화축전에 즈음하여

제 26회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가 문화축전으로 승화되어 오는 4월 27일(일)에 대전 유등천(뿌리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대전 청·장년회는 2004년 발족되어 10년만에 성대한 행사를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의 부회장으로 고희사랑과 대전 대덕구 자원봉사회장,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부회장이

이런 대전체육대회의 특징은 양반진출의 과정인 과거시험을 재현하여 문화축전으로 승화, 권문의 문무 양반의 후예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6회 영주대회가 이어 해외 족친들을 모시기 위해서 명실상부한 권문의 세계화를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권호준 종친회장의 물심양면의 도움과 간부들의 솔선수범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저는(용기 59세,봉화 38세부정공파) 1980년 기성화학을 창업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대전 영주모임 영우

으로 다년간 지역사정을 실천하고 있어 대통령표창과 중소기업회장 표창을 받는 등 대전 지역사회에서 권문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아래 대전 청장년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수석부회장 : 권중순(시의원) 부회장 : 권용수, 권용제, △사무국장 : 권영인 △총무 : 권지원
 - ◇문화축전 준비위원장 : 권선상(우송정보대 교수) ◇사무국장 : 권영인(다솔철강 이사)
- <대전청장년회장 권용기>

부정공공파종회 임원회의

부정공파종회(회장 권오서)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 안동 삼삼식당에서 파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세영 총무의 경과보고, 새임원진 명단 발표, 기타 토의 후

권세영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 참석한 권문수씨(權文洙)를 소개했으며, 권오서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투철한 숭조 정신으로, 파조 제향과 정기총회개회 등 모든 제반사에 열과 성

내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산회했다. <권혁세 기자>

통덕량공중중 정기총회

권영갑회장 연임

통덕량중중(회장 권영갑)은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수원 톨마당식당에서 파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7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진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경과보고, 감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산안은 선조 금초는 전문업체에 위임하고 종산 숲가꾸기는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승인되었다는 보

고를 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서 권영갑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해는 갑오년 청마의 해로 파친모두가 건강하고 여유롭고 유머가 넘치는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으며, 오늘 임기가 만료되니 좋은분을 선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권영승부회장이 임시 의장으로 추대되어 전원일치로 권영갑회

장이 연임되었으며 그의 임원은 새 회장에게 위임했다. 통덕량공중중은 추밀공파 양촌공계, 안양공(휘 반 諱攀) 7대손이고 수원 송죽공의 30세, 진사 도정(都政)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동평부사, 휘 사십공(諱思涉公 從二品) 현 권영갑회장의 고조부이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권태관, 영훈, 영욱, 준성, 영한 ▲회장: 권영갑 ▲부회장: 권영식, 영승, 오영, 영배 ▲감사: 권영식, 영목 ▲총무: 권오진(연임) <총무 권오진>

대중원 서울사무소 이전



◇서울사무소 입주식에서 권경석 사무총장이 고유를 하고 있다.

대중원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3년간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금년 2월말부로 기속사가 임대 만료되어 대중원에서 기속사를 직영기로 결정하고 사무실을 본 빌딩 2층으

로 3월 5일 이전완료하면서 권혁승 상임부총재이인근 회장 쪽이 참여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이전한 지번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龍頭洞), 우편번호 130-820이다.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다.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관공서(구정,소방서,세무소)등에 이전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능동장학회도 서울교육청 승인을 받고 정관을 개정하여 등기 완료하였다. 2층에 사무실을 두고 2,3,4층에 속청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다.

대중원은 전신인 중앙종친회가 1900년대 종로구 당주동 세종맨션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 전국의 족친들 성금으로 2000년 양천구 신정동에 건물을 매입하여 회관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1월 동대문구 용두동 102-136의 건물을 매입하여 서울 번두리에서 종심부로 이전하였다. 2011년 6월 7일 권문이 소망하던 대중회와 중앙종친회가 통합하면서 명실상부한 安東權氏大宗院이 탄생하게 되었다. <편>